

저성장 지속을 경계한다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수출과 투자가 급감하고 소비도 활기를 띠지 못해 성장률 전망이 자꾸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8.8%를 기록했던 실질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에 3.7%, 2분기에 2.7%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금년 연간 성장률은 3% 전후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내년 내후년 아니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나 하는데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이 저성장 현상이 기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는 사실이다. 산업구조나 기술력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것 저것 따져볼 때 과거의 높은 수준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요인이 별로 없다.

수출은 미국 등 세계경기가 살아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제품, 디지털제품 가릴 것 없이 수출주력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단가 하락 현상도 심화돼 물량위주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더 이상 먹혀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인 설비투자는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올 상반기 설비투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원자력 설비 투자를 제외하면 80% 이상이나 감소했다. 그나마 보수·유지나 합리화를 위한 투자가 대부분이고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리를 내리고 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줘도 기업의 투자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공급과잉과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토목공사의 경우 예산 제약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건물건축은 주거용이 주택보급 확대로, 공업용이 산업구조 변화와 설비투자 둔화로, 상업용이 수요부진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맞고 있다.

결국 소비에 성장을 의지할 수 밖에 없으나 소비는 거꾸로 경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성장률을 높여주기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소비에 성장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의 경제체질이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경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가 상승무드를 탈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신경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 출현한 바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 경제관료들마저도 신경제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미국처럼 향후 수년간 고성장-저물가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부터 몰아닥친 신경제 몰락 충격은 이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어뜨려 버렸다.

지금은 신경제를 주도했던 반도체 PC 등이 오히려 경기추락의 주범으로 전락돼 버렸다. 신경제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급속도로 퇴색했다.

신경제=고성장의 등식을 믿으려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들은 불황이 되면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므로 정보기술(IT) 산업의 수요는 오히려 늘고 따라서 경기도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이들은 IT의 발전으로 기업들이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게 되면 재고변동이 사라져 과잉재고→감산→경기위축이라는 경기순환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세계 굴지의 인터넷 네트워크 기업조차 쌓이는 재고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면 이 생각은 빗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기업은 무한정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닷컴 기업들중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좋지만 이를 이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익은 기업에 있어 산소와 같다. 이익을 내는 것만으로는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예외없이 소멸되고 만다”는 경영학의 평범한 이론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가 채 안되는 시대에 저성장기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혹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민소득 1만달러 안팎의 시대에 저성장기조에 진입했다는 점을 들어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 버릴는지 모른다. 또 그동안 한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므로 지금쯤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0위권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뛰어날 길 이 아직 멀다. 이 상태에서 과거 가졌던 용맹한 호랑이의 기세를 잃어버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잠시 움츠렸던 몸을 펴 다시 뛰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변혁이다.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금융관행을 고치고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정부 기업 국민이 과거 스타일대로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더 이상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저성장 진입이나 재도약이냐의 갈림길에 선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이다.